

■ 주요 경기 전망

사우디 "16강 불씨 살린다"

◇H조 사우디아라비아-우크라이나 (20일 오전 1시·함부르크)=튀니지와 1차전에서 다 잡았던 경기를 후반 인저리 타임에 동점골을 내주는 통에 비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점 쌓기에 나선다. 애초 H조에서 스페인과 함께 '2강'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던

우크라이나는 1차전 스페인과 경기에서 04로 참패를 당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승세가 어떤 결과를 낼 지 예상이 쉽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16강 진출의 기쁨을 다시 누릴 태세다.

'무적함대' 스페인 상승세 지속되나

◇H조 스페인-튀니지(20일 오전 4시·슈투트가르트)=스페인튀니지전은 한국이 16강에 오를 경우 만나게 될 팀들의 맞대결인 만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스페인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월드컵에서 번번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스페인은 우크라이나와 1차전을 통해 세대 교체에 완벽히 성공했다는 평을 들으며

단숨에 우승 후보로까지 떠올랐다. 1차전에서 혼자 2골을 넣은 다비드 비야와 선제골의 주인공 사비 알론소 등은 이날 교체 멤버로 투입된 라울의 빈 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했을 정도다. 튀니지 역시 1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에서 다 졌던 경기를 후반 인저리타임 극적인 동점골로 승점 1점을 따내 '한 번 해보자는' 의욕이 넘친다.

조 1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승부

◇A조 독일-에콰도르(오후 11시·베를린)=나란히 2승으로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두 나라 간의 대결이다. 그러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승부인 이유는 이 경기에서 패해 조 2위로 떨어지면 B조 1위가 유력한 잉글랜드와 16강 길목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 유리한 쪽은 에콰도르다. 골득실에서 +5로 +3의 독일보다 앞서 이날 비기지만 해도 조 1위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미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경기를 할 수 있다.

16강 탈락 두 팀 '유종의 미' 한판

◇A조 코스타리카-폴란드(오후 11시·히노베)=이 경기는 반대로 2패로 탈락이 확정된 팀끼리의 경기라 다소 맥이 풀린다. 코스타리카는 개막전에서 2골을 몰아넣었던 파울로 안초페가 다시 득

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이고 아직까지 이번 대회에서 골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폴란드는 첫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BEST & WORST



브라질서 온 '해결사'

BEST 포르투갈 데쿠

포르투갈이 월드컵에 향한 한을 풀기 위해 브라질에서 영입한 '해결사' 데쿠(29·FC 바르셀로나)가 '제2의 조국'을 40년만에 16강으로 견인했다.

데쿠는 후반 18분 왼쪽 사이드를 파고 든 루이스 피구의 패스를 눈스름 중거리슛으로 연결해 이란의 왼쪽 골망을 흔들었다. 데쿠의 선제골로 힘을 얻은 포르투갈은 후반 40분 피구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성공시켜 2-0으로 완승, 16강행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브라질에서 태생의 데쿠는 지난 2003년 역시 브라질 출신인 스펠리 포르투갈 감독의 요청으로 국적으로 바꾸고 대표팀에 합류했다.



문전서 헛발질 자책골

WORST 이탈리아 차카르도

이탈리아 '빚장 수비'의 중심으로 떠오른 신예 차카르도(25·팔레르모)는 첫 출전한 월드컵에서 평생 잊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다.

이번 월드컵에서 최악의 난전이 벌어진 미국전에서 아이없는 헛발질로 이탈리아의 우세를 한 방에 날려 버린 것.

이탈리아가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미국의 프리킥이 문전으로 날아오자 차카르도는 다급하게 걸어낸다는 것이 그만 빚맞아 이탈리아 골문으로 굴러 들어가 자책골을 기록한 것. 이탈리아 팬들은 물론 대표팀 동료들조차 크게 한숨을 내쉬는 수밖에 없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포르투갈 40년만에 16강 진출

가나 '검은 돌풍'...FIFA 랭킹 2위 체코 꺾고 16강 불씨 살려



포르투갈의 포워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란과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데쿠 선제골 승리 견인

■ 포르투갈-이란 (2-0)

이베리아반도의 '자주빛 전사' 포르투갈이 40년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포르투갈은 17일(한국시간) 프랑크푸르트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06독일월드컵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데쿠의 선제골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쐐기골에 힘입어 이란을 2-0으로 물리쳤다.

1차전에서 앙골라를 1-0으로 제압했던 포르투갈은 이로써 2연승으로 승점 6점을 확보, 21일로 예정된 멕시코와의 3차전 결과에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포르투갈이 월드컵 16강에 오른 것은 '흑표범' 에우세비오가 눈부신 활약을 펼쳐 3위에 올랐던 1966년 잉글랜드대회 이후 무려 40년만이다. 반면 2연패를 당한 이란은 1978년 아르헨티나월드컵, 1998년 프랑스월드컵에 이어 3회 연속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득점력 부재에 애태우던 포르투갈은 후반 18분 좌측을 파고들던 피구가 가운데로 밀어주자 페널티 정면 20m 지점에서 데쿠가 통렬한 눈스름 슛을 날려 마침내 이란 골네트를 흔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

아프리카팀 첫 승

■ 가나-체코 (2-0)

가나는 18일 쾰른 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06독일월드컵 E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아사모아 기안의 선취골과 설리 알리 문타리의 쐐기골을 앞세워 체코를 2-0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1차전에서 이탈리아에 패한 뒤 '거함' 체코를 상대로 첫 승을 올린 가나는 22일 미국과 3차전에서 16강 진출을 노리게 됐다. 세계랭킹 2위인 체코와 월드컵 본선에 첫 출전한 48위 가나의 대결은 체코의 우세가 짐작됐지만 막상 투쟁을 열자 가나가 완전히 압도한 경기였다.

가나는 전반 2분 좌측에서 스티븐 아피아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자 문전에서 버티던 기안이 가슴 트래핑으로 공을 컨트롤한 뒤 강력한 땅볼슛을 날려 순식간에 결승골을 뽑았다. 후반 20분 체코 수비수 우이팔 루시의 퇴장으로 11-10으로 수적인 우위를 갖게 된 가나는 37분께 절묘한 2-1 패스로 체코 문전을 휘저은 뒤 문타리가 쐐기골을 꽂아넣어 승부를 결정지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체코와 경기에서 골을 넣은 가나의 설리 알리 문타리(왼쪽에서 두번째)가 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퇴장 3명...자책골

■ 이탈리아-미국 (1-1)

이탈리아와 미국이 경교와 퇴장이 난무하는 격한 경기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18일(한국시간)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벌어진 2006독일월드컵 E조 조별리그 미국과 2차전에서 알베르토 질라르디노가 선취골을 터뜨렸으나 크리스티안 차카르도가 빠아픈 자책골을 만들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승점 4점으로 조 1위를 지켰으나 22일 체코와 3차전에서 최소한 비겨야 16강 진출을 바라보게 됐다.

반면 1차전에서 체코에 0-3으로 패했던 미국은 겨우 승점 1점을 확보했지만 3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경기는 미국에서 2명, 이탈리아에서 1명이 퇴장을 당하는 등 거친 플레이로 일관된 한 판이었다. 전반 22분 미국 진영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얻은 이탈리아는 안드레아 피를로가 낮고 빠르게 감아 올리자 쇠도하던 알베르토 질라르디노가 다이빙 헤딩 슛으로 잘라 넣어 기쁨의 첫 골을 터뜨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